

각혈 환자의 임상적 고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
 김호경, 오중환, 김은기, 이종국

대량각혈은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30-50%의 사망율이 있는 심각한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환자들의 상태가 고질적이고 폐기능이 좋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선진국에서의 이러한 환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전에 결핵이 많았던 우리의 현실로 비추어보아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1990년 1월부터 1993년 6월까지 각혈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한 4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방법에 따라 기관지동맥색전술만 시행한 군(제1군), 기관지색전술 후 수술한 군(제2군), 수술만 시행한 군(제3군)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호발계절은 4-5월이고 과거력 상 폐결핵이 30명(62.5%)에서 있었다.
- 2) 객담도말검사서 결핵균 양성이 11명(23%)에서 있었다.
- 3) 과거력상 각혈이 있었던 경우는 23명이며 15명(79%)의 재발한 경우는 모두 수술하였다.
- 4) 각혈의 평균 양은 제1군 $215.8 \pm 186.1\text{cc}$, 제2군 $303.3 \pm 182.8\text{cc}$, 제3군 $247.1 \pm 227.8\text{cc}$ 로 제2군에서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의의는 없었다($p < 0.05$).
- 5) 제2군은 기관지동맥색전술 후 평균 5.3 \pm 4.5일 경과 후 수술하였다.
- 6) 수술은 폐엽절제술 10예, 전폐절제술이 8예, 폐일부절제술 1예였다.
- 6) 평균 4개월(1-24개월)의 추적조사결과 제1군에서 재발 2명, 사망 3명있었다. 재발 경우는 다시 수술하였다.

결론적으로 기관지동맥색전술만 시행하는 경우 재발과 사망의 가능성이 있고 응급수술보다는 기관지동맥색전술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후 다시 수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